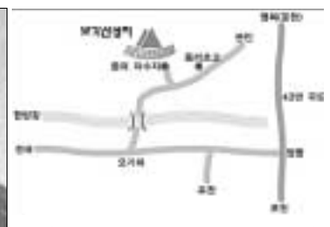
기 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㊾ - 보가산성(保架山城)**

弓裔가 자기 부하장군 王建과 싸운 성터

최 종 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36호
· 소재지: 포천시 관인면 중1리 산 251-1
· 규모: 약 70m 가량 잔존

포천시 관인면 중1리 산251-1에 위치한 흥용사 보가산성(保架山城)



관인면 중리 보개산(保蓋山) 향로봉(香爐峰)아래 큰 골에 있는 옛 성지를 보가산성이라 한다.

이 산성은 강원도 철원에 도읍하였던 태봉국왕 궁예가 자기 부하 장군이었던 王建에게 쫓길 때 왕건과 싸운 성터라고 傳來되고 있다. 현재 잔존(殘存)하고 있는 것은 약 70m의 城으로 잘 남아 있는 곳은 높이 7m, 길이 30m 정도이다.

보개산성 또는 궁예왕대각대성자(弓裔王大閣堅城地)라고도 한다. 보개산 향로봉의 심원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축조한 관인면 중리에 호수가 있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노라면 자장원(일명 큰 골)이 있으며 계곡 깊숙이에는 어느 시대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폐허가 된 古寺地가 있고, 머리 부분이 없는 石佛이 있다.

높은 峰. 깊은 골의 심유(深幽)한 맛은 피곤한 시민의 心身에 청량제로서 이 山城의 하루 길도 가족 동반의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다.

山城주위의 山水 또한 아름다워 근래에는 경향 각지의 탐승객(探勝客)이나 등산가들의 발길이 늘어가고 있다.

찾아가는 길은 영평에서 전곡으로 가는 37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오가리 삼거리에서 철원 가는 길로 우회전하여 약 8km 정도 가면 중리 이고, 중리 저수지 쪽에서 좌회전하여 좁은 계곡을 따라 4km 정도 올라가면 된다.

교육에세이 22

선생님의 역할

조 대 행
동남고등학교 교장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모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동안의 내 행동에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자를 존중하고 스승으로 섬기는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동격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던 것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이 사회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사회의 교육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부교사들의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이 문제가 되어, 학부모들의 존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과밀학급 속에서의 사제관계가 인간성을 상실한 사무적 관계로 귀착되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사랑과 이해로 대해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관심밖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학생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기도 하며, 학부모님의 지나친 교육열이 공교육의 혼돈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윤리관의 재정립과 사도확립입니다. 교육발전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고, 땅에 떨어진 사도의 자존심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일에 사는 아이, 어제에 사는 어른'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큰 틀도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다운 학교이며, 그 중심에 교사다운 교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다운 교사'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학교와 동료 교사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다.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자기연찬은 얼마나 하고 있으며,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는지도 자문해 보아야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혼을 심어주어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교사로 변하면 분명히 학교도 변하고, 우리의 교육도 밝고 건강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고,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해 낼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선생님은 교직이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행, 교양, 생활태도 및 인격까지 주위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이 다른 학교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어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꿈이 있는 사랑의 배움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을 길러내는 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값진 일에 종사함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후세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참 스승이 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배신에 대한 환멸은 어디가 끝인가

박 정 근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시혜를 베푼 자가 자신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해 쓰라린 배신에 대해서 토로하는 쓰라린 환멸을 극화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테네의 타이몬'이다. 타이몬은 친구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시민들의 크고 작은 재정적인 도움을 아낌없이 주는 매우 관용적인 인물이다. 그는 남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차용해주고도 그들의 보상이나 되갚음을 기대하거나 용인하지 않는다. 마치 그의 재산을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는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로서 친구들이나 이웃을 자신의 분신처럼 믿고 공생하고자 하는 성선설의 실천주의자처럼 행동한다.

타이몬은 그의 선행과 공적을 칭송하는 귀족들에게 친구간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오, 신이여! 만일

> 겉만 번질한 가증할 기생충들, 친절한 척 보이는 곰들, 재물의 광대들, 식객들, 쇠파리들, 굽실거릴 줄이나 알고 있는 놈들, 증기 같은 놈들, 변절자들, 인간이나 짐승이 걸릴 수 있는 온갖 나쁜 병에 걸려서 종기 투성이가 되어라!

서로 돕고 산다는 것이 없다면 친구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상자 속에 넣어 둔 채, 그 묘한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준 일이 없는 악기와 같은 무용지물입니다. 나는 이따금 가난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한층 더 친밀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이죠.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것이 친구의 의무입니다.

친구의 재물이야말로 서로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온당한 일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치 형제나 같이 자유스럽게 함께 재산을 나눠 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현대인처럼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소유자들에게는 타이몬은 소위 나사 하나가 빠진 몽상가로 보이리라. 왜냐면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재산은 곧 탕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이몬의 냉소적인 친구 애페맨터스는 그의 무절제한 자선으로 말리암아 일어날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 그는 타이몬의 잔칫상에 모여든 아테네의 귀족들과 친구들의 아첨과 칭송을 들으며 그들의 허위성을 간파한다. 그의 눈에는 고기를 삼키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타이몬의 피를 양념삼아 찍어먹는 악마로 보인다. 그의 냉철한 계산으로는 타이몬의 곳간이 비어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다. 그는 타이몬이 베푼 향연에서 고기와 술 대신 풀뿌리와 물를 먹고 마시면서 타이몬에게 경고하기를 "건강을 위해 축배하고 있는 사이에 자네의 건강은 더욱 더 나빠진다네. 여기에 죄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물이라는 정직한 놈이 있네. 이놈은 절대로 인간을 진구렁 속으로 끌어넣지 않네"라면서 향연의 위험을 알려준다.

타이몬의 친구와 시민들을 위한 자선과 향연은 어느덧 종말에 치닫는다. 타이몬의 집사는 재정적인 압박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타이몬에게 그의 파산상태를 알려준다. 그와 동시에 타이몬의 무절제한 재정지출로 인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집에는 친구가 아닌 채권자들로 가득하게 된다. 그의 재산을 모두 저당 잡혀도 부채는 반 이상 남아있는 무일푼 신세가 된 타이몬은 이제 그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그런데 무슨 조화인지 그들은 모두 안면을 바꾸고 그의 구원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푼 타이몬의 무절제함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나선다.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나 할까.

타이몬이 류컬러스와 류시어스에게 하인을 보내어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셈프로니어스는 거절의 명분을 그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은 그를 무시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교활하게 도움을 손길을 뿌리친다. "이거 사람을 너무나 무시하는구나. 기분 나쁘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일 먼저 나에게 찾아왔어야 했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나로 말하면 공으로부터 제일 먼저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속으로 자신하고 있었는데, 내게는 맨 나중에 부탁해올 정도로 도외시 당하다니,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 돌아서는 타이몬의 하인은 인간의 악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의 거절은 타이몬이 믿었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마저 포기해야하는 마지노선이었던 것이다.

타이몬은 친구들의 위선에 치를 떨고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만찬을 열겠다고 초대한다. 타이몬이 빈털터리인 줄 알았던 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구조요청이 단지 그들을 시험해보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모여든다. 그들은 이전의 거절을 단지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이었노라고 변명을 하면서 대단한 잔칫상을 기대한다. 잔칫상을 커다란 포로 덮은 채 들여온 타이몬은 또다시 아첨을 시작하는 귀족들을 끝없이 경멸하면서 소리친다. 덮개를 연 상위에는 단지 뜨거운 물과 돌로 가득 차있을 뿐이다.

그는 뜨거운 물을 그들의 얼굴에 끼얹으면서 "겉만 번질한 가증할 기생충들, 친절한 척 보이는 곰들, 재물의 광대들, 식객들, 쇠파리들, 굽실거릴 줄이나 알고 있는 놈들, 증기 같은 놈들, 변절자들, 인간이나 짐승이 걸릴 수 있는 온갖 나쁜 병에 걸려서 종기 투성이가 되어라!" 그는 돈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돌을 던져 내쫓는다. 지상의 최고의 이상주의자가 최악의 인간혐오자로 변하는 순간이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선하며 또 어디까지 악한 것인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남의 친절을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그들의 구조요청을 치졸한 이기심의 발로로 거절한 적은 없는가 하고 말이다. 위정자들 또한 돌이켜봐야 한다. 국민들의 순수한 지지를 받고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말이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기공사 전문업체

최 두 열
대표이사

성실시공 · 실력배양 · 주인의식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기타 전기공사
- 빌딩
- 호텔
- 소방설비공사

고 은 종 합 전 기 (주)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전화 : 031)542-9771~4 / Fax : 031)542-1115